

합류시대는 즐거운 장면들로 이루어진 시대다.

오늘 밥다다는 크고 작은 그의 태평한 황제들을 보고 있다. 전체 모든 황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들의 집회가 열리는 것은 오직 합류시대에 뿐이다. 다른 어떤 시대에도 이토록 많은 황제들의 집회는 없다. 너희 모두 태평한 황제들의 집회, 자아의 군주들의 집회를 보는 것은 지금 이때뿐이다. 젊거나 늙었거나 너희 모두 제 스스로가 황제라는 것을 알고 또 이 몸의 주인인 순수한 영혼이라 여기며 움직여 나아간다. 영혼은 무엇이나? 주인이다. 자아의 군주, 자아의 주인이다. 제일 어린 자녀조차 제 스스로를 황제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황제들의 집회, 즉 자아의 군주들의 집회는 참으로 위대하다. 남들을 전체 모든 황제들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황제, 왕들 중의 왕으로 만드는 분은 태평한 황제들, 미래에 왕이 될, 현재의 왕들을 보며 참으로 기쁘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도 수십만 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황제인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들 중 누구라도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하겠느냐?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저는 락쉬미나 나라얀이 될 거예요!”라고 얘기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 모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아버지이니 그에게 속하는 왕가의 자녀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왕들의 가문에 속한다는 영적인 도취감을 너희들 모두 느낀다. 너희는 왕가의 일부일 테지? 그래서 오늘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참으로 복이 많다! 각 자녀 하나하나가 행운아다. 더불어 너희는 또 때의 협조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합류시대가 짧은 시대인 바로 그만큼 이것에는 특별함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합류시대에 너희가 가진 성취는 다른 어떤 시대에도 달성할 수 없다. 합류시대는 즐거운 장면들의 시대이며 오직 즐거움뿐 다른 아무것도 없다. 먹을 때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먹는다. 걸을 때 너희는 행운의 공여자와 손을 맞잡고서 걷는다. 지식의 감로를 마실 때 너희는 지식의 공여자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마신다. 행위를 행할 때 너희는 제 스스로를 도구라 여기며 카라반하르 아버지와 함께 한다. 잠잘 때 너희는 기억의 품에 안겨서 잔다. 깨어나면 너희는 신과 대화를 나눈다. 너희의 하루 일과 전체가 아버지와 너희에 대한 일정이다. 아버지 (밥)가 너희와 함께일 때는 죄 (팝)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느냐? 즐거움이 있을 텐데 즐거움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을 것이 아니냐?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이 매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너희는 즐거워하며 축하하려고 이 짧은 생을 취했다.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즐거움 속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미묘한 생의 의무는, 즉 이번 생의 미덕은 즐거워하며 머무는 것이다. 너희의 거룩한 활동은 봉사의 즐거움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번 생의 목표는 즐거워하며 머물고 이 세상 전체를 완전한 즐거움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즉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는 즐거운 장면들 속에서 지내지 않느냐? 너희는 태평한 황제로 낮과 밤을 보내지 않느냐? 그러니 바바가 오늘 서틀리전에서 뭘 보았는지 들었느냐? 태평한 황제들의 집회다. 황제들 각자가 기억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가슴의 옥좌에 앉혀졌다는 의식의 틔락이 찍혀 있었다. 앗차. 오늘은 만남의 날이므로 바바는 그의 황제들을 만나려고 왔다. 앗차.

변함없이 태평한 황제들에게, 즐거운 삶 속에서 즐거운 장면들을 보는 자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자들에게, 그런 자아의 군주들, 자아의 주인들, 가슴의 옥좌에 앉혀진 자들에게, 수백만 배로 복 있는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어린 아이들의 그룹을 만나심.

너희 자녀들 모두 제 스스로를 위대한 영혼이라 여기며 공부하고 놀고 움직여 나아가느냐? 항상

너희가 위대한 영혼이라는 행복과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신의 자녀들이라는 도취감을 가져라. “당신들은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너희에게 신을 소개해 달라고 청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모두 신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신의 자녀들로서 너희는 싸울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 너희는 말썽을 피우느냐? 신의 자녀들은 요기들이니 너희가 어찌 말썽을 부리느냐? 언제나 너희들 스스로를 위대한 영혼, 요기 영혼이라고 여겨라. 너희는 무엇이 될 테냐? 동시에 락쉬미와 나라얀, 둘 다 되겠느냐? 아니면 때로는 락쉬미가 되고 더러는 나라얀이 되려느냐? 너희는 락쉬미가 되면 좋겠느냐? 앗차. 만일 너희가 변함없이 나라얀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경우엔 한결같이 평온한 요기의 삶을 살고, 매일 아침 깨어나면 반드시 바바에게 “굿 모닝”이라고 인사해라. 늦게 일어나 대중 빨리 준비하고 가야 할 데로 가지는 마라. 단 3분 동안이라도 반드시 기억하며 앉아서 “굿 모닝”이라고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준비해라. 결코 이 맹세를 잊지 마라. 만일 “굿 모닝”이라고 인사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엔 먹지 마라!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먼저 “굿 모닝”이라고 인사하기를 기억해라. 먼저 “굿 모닝”이라고 인사하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지식에 대한 공부를 복습하고 미덕들 역시 잘 익혀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인 장미가 되어 세상에 향기를 퍼뜨릴 것이다. 항상 활짝 피어있는 장미들은 변함없이 향기를 퍼뜨린다. 이처럼 너희는 그렇게 향기로운 꽃이 아니냐? 너희는 한결같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느냐? 아니면 불행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얼마나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천사들처럼 움직여라. 천사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에 인간들은 시끄러운 소음을 낸다. 너희 브라민들은 천사가 될 것이니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마라. 남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조용하게 걸어라. 천사처럼 먹고 마시고 걸어라.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를 매우 대단히 축하한다. 너희는 착한 자녀들이고 언제나 착할 것이다. 앗차.

밥다다가 어린 소녀들에게 말씀하심.

쿠마리의 생에 대한 칭송이 무엇이나? 쿠마리들이 숭배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는 순수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순수한 기억을 가지고 남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봉사를 하며 늘 바쁘게 지내는 순수한 영혼들이다. 젊거나 늙었거나 너희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나이 어린 자들까지도 아주 강의를 잘 한다. 너희 쿠마리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자에게 큰 무대 위에서 강연을 하라고 밥다다가 요청한다면 너희는 준비되어 있겠느냐? 너희는 망설이지 않을 테지? 두려워하지는 않겠지? 언제나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이로움을 주는 세계 시혜자 영혼이라고 여겨라. 너희는 평범한 쿠마리들이 아니라 고귀한 쿠마리들이다. 고결한 쿠마리인 너희들은 고귀한 일을 하지 않느냐? 전체 모든 고귀한 일 가운데서 최고로 고귀한 일은 남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줘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비틀대며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매는 반면 너희는 이미 그를 알아보고 그를 얻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복 많고 운 좋은 영혼들이다! 이젠 너희가 신에게 속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변함없이 복 많은 영혼이라는 행복을 끊임없이 가져라. 이 행복을 한번이라도 잃는다면 너희는 때로는 울고 또 다른 때는 말썽을 일으킬 것이다. 항상 사랑을 갖고 함께 살며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세계 너머에서 온 아버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머물러라, 오직 그제야 너희가 고결한 쿠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언제나 너희 스스로를 고귀한 쿠마리, 숭배받을 가치 있는 쿠마리라고 여겨라. 너희는 사원에서 숭배되는 바로 그 샹티들이 아니냐? 쿠마리인 너희 각자는 위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너희는 세계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에게 세계 변화의 과업을 주었다. 그러한즉 아버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머물고 봉사해라. 세계 변화를 위한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너희는 이제 지난 생에서 완전히 변했으니, 단지 고귀한

영혼, 순수한 영혼, 위대한 영혼, 복 많은 영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머물기만 해라. 학교나 대학에 갈 때 너희가 이 기억을 잊지는 않을 테지? 너희는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았지? 너희는 음식이나 음료 등에 이끌리는 일이 결코 없겠지? 비스킷을 몇 개만 먹어보거나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보기를 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테지? 너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요리한 브라민 보전을 먹는 굳건한 자들이 아니냐? 돌아갔을 때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쿠마리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복을 지을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봉사하는 데 관심을 가져라. 공부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역시 배워라. 어린 시절부터 영리해지면 너희들이 자라서는 어디든 원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수립 당시엔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젠 성장해서 봉사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다. 너희는 그들보다도 더 똑똑해질 것이다. 너희는 내일의 행운이다. 내일 바라트는 천국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내일의 행운이다. 너희를 보는 이는 누구든 너희가 예사로운 쿠마리들이 아니라 특별한 쿠마리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라.

그 공부를 하는 동시에 너희 가슴속에 지식 공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게 해라. 학업을 마친 뒤 너희의 목표는 무엇이나? 고귀한 영혼이 되어 고귀한 과제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직업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않을 테지?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부모에게 달리 수입의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필요성의 문제다. 그렇지만 항상 너희의 현재와 미래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유용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지식 공부는 21생 동안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목상으로 세속의 일을 해야 되는 처지라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봉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게 해라. 너희들 모두 왼손이 되지 말고, 오른손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모두 오른손이 되면 그때는 파멸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삭티인 너희들 모두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올 때 라반의 지배는 끝날 것이다. 너희는 브라마 쿠마리가 될 텐데 학위를 갖고 뭘 하려느냐? 그 공부는 너희가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면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 자신의 마음속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올해 이 학위를 딸 것이고 내년엔 다른 학위를 하나 더 따고 그 다음엔 또 하나를 더 따겠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만일 죽음이 온다면, 그 경우엔... 그러한즉 계속해서 너희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 여부에 관해서 도구인 자들에게 조언을 계속 구해라. 학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일부 있다. 그들은 제 스스로를 속인다. 너희 인생이니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너희들 스스로 판단을 내려라. 너희는 쉬브 삭티들이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굴레로 속박할 수 없다. 양들이나 굴레에 묶이지, 삭티들은 그렇게 묶일 수 없다. 삭티들은 사자 등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사자들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탁 트인 벌판에서 산다. 그러므로 언제나 너희가 아버지의 오른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앗차.

밥다다가 선생들을 만나심.

너희가 도구 봉사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느냐? 카라반하르 (너희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분)가 너희를 도구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니 책임은 카라반하르에게 있지 않느냐? 도구가 된 자들은 변함없이 가볍게 지낸다. 너희는 지시를 받았고 과제를 수행했으며 한결같이 가볍게 머물렀다. 너희는 이렇게 머물렀느냐, 아니면 때로는 봉사의 부담을 경험하느냐?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부담을 느낀다면 성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굴레로 여김으로써 너희의 행위는 단 하나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세속의 일에서도 역시 어떤 과제를 짐이라고 느끼면 너희는 뭔가를 깨뜨리거나 찢어지게 해서 마음에 뭔가 혼란이 생기거나 방해받을 것이다. 과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세상의 일이 아닌 이 과제를 짐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담은 계속 늘 것이고 너희는 합류시대의 고귀한 행운, 가볍게

날아다니는 행운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합류시대의 브라민이 된 너희가 뭘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를 도구라 여기며 변함없이 가벼운 상태로 머물며 모든 과제를 행해라. 이를 두고 성공의 화신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들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며 참으로 가볍다. 그들의 속도는 참으로 빨라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을 때 너희에게는 슈리마트라는 스케이트가 주어진다. 슈리마트의 스케이트를 가지면 너희 노력의 속도는 자동적으로 빨라진다. 그런 봉사자로서 항상 움직여라. 부담은 전혀 경험하지 마라. 카라반하르가 아버지인데 어쩌서 부담이 있느냐? 이 의식을 갖고 한결같이 계속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움직여라. 단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아다녀라. 이를 두고 1등으로 가치 있는 봉사자라고 부른다. 그저 바바, 바바, 바바뿐이다. 소리 없는 이 음악은 계속 매 1초1초마다 연주된다. 단지 “바바와 나!”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한결같이 합쳐져 있어라, 그러면 제3자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 끼여들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의 마음속에 합쳐져 있으면 양쪽 모두 행복하고 아무도 그들 사이에 끼여들 수 없다. 이를 두고 고귀한 봉사자가 되었다고 한다. 너희는 이와 같으냐? 다른 누구도 보지말고 다른 어떤 애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단지 바바와 나뿐이다. 끊임없이 이 즐거움을 느끼며 축하해라. 너희는 아주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즐기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때다. “즐거움 외엔 아무것도 없네” 라는 노래도 있다. 일어날 때, 걸을 때, 봉사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해라. 춤을 많이 추고 노래 부르고 행복해라. 춤추며 행복하게 봉사해라. 다리를 절면서 하지는 마라. 합류시대에 너희는 모든 관계를 다 가진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며 많이 축하해라. 즐거운 장면들을 끊임없이 경험해라. 앗차.

Blessing: 죄 되는 행위의 정복자가 되어서 카르마의 깊은 원리를 아는 자가 됨으로써 다람라지의 나라에서 벌받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구해라.

벌받는 것은 다람라지의 나라에서 경험된다고 일컬어지지만, 다람라지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너희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무시무시한 형태의 악령으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때가 회한과 무관심의 때다. 심지어 사소한 죄들마저 악령처럼 보일 것이다. 후회 막심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받는 느낌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르마의 깊은 원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고결한 행위를 행하고, 죄 되는 행위의 정복자가 되어라.

Slogan: 몸, 마음, 부로 아버지에게 제 스스로를 완전히 헌신하는 자들은 아버지 목에 걸린 화환이 된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